

무사고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 <XI>

金 元 夏

<교통신문·편집부국장>

91. 우중에 장시간 주행할 때에는 브레이크의 효능에 주의해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이나 우중을 장시간 주행하면 차륜이 흠뻑 젖어 드럼과 슈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브레이크의 효능이 나빠져 거의 듣지 않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행하면서 때때로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 드럼과 슈의 마찰열로 스며든 물을 건조시켜 주어야 한다.

92. 창문을 꼭 닫지 말라! 시계의 악화를 귀(耳)로 보완하라.

비오는 날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창문을 꼭 닫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오는 날의 운전은 운전자석의 창문을 약간 열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운전해야 한다. 즉, 시계가 나쁘기 때문에 안전확인을 눈으로만 할 수 없어 귀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좌·우 회전 또는 후진할 때에도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어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93. 초저녁이나 야간에는 정보가 반감되어 발견이 곤란하다.

대부분의 사고는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인지, 발견이 늦어진다는가 착오가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야간에는 본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매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야간에 주간과 같은 주행방법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운전인 것이다.

94. 야간의 스피드 조절은 전조등의 조사거리를 참작하라!

야간에는 전조등의 빛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라이트의 조사거리는 시가지주행에서 하향일 경우 40m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40m 이내에서의 안전주행을 고려한다면 대략 40km가 한도이므로 그 이상의 속도일 때에는 위험을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다.

한편 비시가지에서 상향할 경우라도 100m 범위내이므로 시속 60km 이하가 안전속도인 것이다.

95. 네온싸인은 잘 보일지라도 보행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시가지에서는 가로등이나 네온등으로 어느 정도 밝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느낌」이지 실제로는 그리 밝다고는 할 수 없다. 가로나 네온이 잘 보인다고 하여 방심하면 위험하다.

특히 횡단중인 보행자는 길가운데 있을수록 발견이 곤란하여 간과 또는 충돌하게 되므로 네온 불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6. 야간에는 약간 중앙선쪽으로 운행하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로등도 없고, 그래도 보행자 등의 왕래가 예상되는 비교적 어두운 시가지부의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평상시보다 약간 중앙선쪽을 따라 주행하여 보행자의 뛰어들기나 무등화 자전거에 대비해야 한다.

너무 우측으로 빗겨 주행하면 불의에 횡단하는 보행자나 무등화 자전거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회피가 곤란하게 된다.

97. 야간에 커브의 정점부근에서는 대향차와의 교행을 피하다.

야간에 있어서 교외도로의 커브부분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대향차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이트의 빛에 의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미리 대향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피드를 조절하여 커브의 정점부근에서 엇갈릴 때에는 대향차의 라이트에 의해 현혹되어 일순간 눈먼 운전을 하게 되어 조정이 곤란하게 된다.

98. 앞차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을 하향하라.

야간에 시가지에서는 라이트를 하향하고 속도를 낮추어 주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교외에서도 대향차가 접근해올 때에는 하향해야 한다. 이는 타차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앞차를 추종할 때 라이트를 상향하면 앞차의 실내후사경에 비치게 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게 되므로 하향해야 한다.

99. 대향차의 전조등빛을 직시하지 말라.

대향차가 라이트를 상향한 채로 접근해올 때나 부득이 커브의 정점에서 엇갈림을 할 때에는 그 차의 라이트빛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향차가 접근해오면 눈은 우측방을 향하고 우측의 가드레일이나 외측선을 기준하여 주행한다는 것과 만일의 경우 현혹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전방의 상황을 염두에 확실히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100. 사고를 내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일상 점검과 정비를 태만히 하지 말라.

방어운전이 몸에 배어 교통전쟁에서도 무사히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상에 열거한 100포인트 외에 자신이 체험한 것은 자신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의 T.P.O(Time, Place, Occasion)를 인식하고 익숙해지는 동시에 차량의 점검정비도 방어운전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식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차의 건강관리에 좀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인생사고란 말이 있다. 특히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정부 각부처가 이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우리 모두 방어운전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그만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에 대해 연재를 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前·前·左·右·對·後 6대의 차를 조심하면 될 것이다.

〈完〉